

## 여성 시청자, 어떤 여주인공을 싫어하나

## 주관 없고 남성의존적인 여자 '질색'

"딸 있으면 '신희' 나 '서영' 처럼 키우겠다" -60.6 %

우리나라 여성시청자들은 <결혼>의 지영이나 <일과 사랑>의 상희, <여자의 거울>의 김원희 사장 같은 여주인공상을 싫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 '주관이 없고 확실하게 당당하지 못하며 이기적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성의존적'이기 때문이다.

또 50대 여성들은 <전원일기>의 큰며느리 같은 여주인공상을 좋아하면서도, 딸에 대해서는 <결혼>의 서영처럼 진취적인 여성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경향은 <한국여성개발원>이 현대 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3백명을 대상으로 펼친 <TV 가정 프로그램의 여성역할 수용도> 조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.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4일 열린 <서울 세계 여기자 포럼> 중 <여성과 미디어 소비자 운동>(주최 발표: 이경자 한국여성개발원 정보자료실장) 순서를 통해 공개되었다.

우선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, 판매·서비스 직 종사자나 기능직 등 직장을 가진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이 뉴스를 많이 보며, 사무·기술직이나 전업 주부들은 드라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드라마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'여성드라마'를 즐겨 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농촌드라마나 홈 코믹 드라마에 대한

선호도가 가장 낮았다.

가장 좋아하는 여주인공상을 보면, 4,50대 고졸 이하 저소득층 여성일수록 <전원일기>의 큰며느리를 지지하는 반면, 같은 4,50대라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<당신이 그리워질 때>의 신희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<결혼>의 둘째딸 서영을 이상적인 여주인공상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2,30대의 전문대졸 이상 전문자유직 종사자나 대학생이었다.

한편, 만약 딸이 있다면 진취적이고 신념이 뚜렷한 여성으로 키우겠다는 의견은 시청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이었다. 이 중 20대와 50대 이상의 여성은 <당신이 그리워질 때>의 신희를, 30대 여성은 <결혼>의 서영을, 40대 여성은 <전원일기>의 큰며느리를 첫째로 꼽았다.

이 조사를 주도한 이경자씨는 "지금 우리 여성들은 가치관이 혼재된 상태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"며 "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남녀평등 의식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"이라고 지적한다.

또한 "우리의 여성 시청자들은 주관이 없고 남성의존적인 여성상을 싫어한다는 점을 방송사 측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"이라는 말도 덧붙였다.